****

**SK E&S, 필리핀 정부에 1조 8,000억 규모**

**LNG인프라 건설 사업 제안**

**- 필리핀 LNG 수요 급증 예상…필리핀 정부와 LOI 체결**

**- 韓-比 정상회담 계기로 정부간 경제협력 강화 방안 협의**

**…LNG인프라 구축 사업 필두로 양국간 에너지협력 MOU체결**

**- SK E&S, 지난해 현지 사무소 차리고 사업기회 모색**

SK E&S(대표이사 유정준, www.skens.com)가 지난 5일 약 1조 8,000억원 규모의 필리핀 LNG인프라 구축사업을 제안하는 내용의 LOI(Letter of Intent∙의향서)를 필리핀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와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SK E&S는 필리핀 북부 루손(Luzon)섬 일대에 연간 처리용량 최대 5백만톤 규모의 LNG터미널과 복수의 중대형(600MW 이상) LNG발전소, 그리고 터미널과 발전소를 잇는 최장 150㎞ 길이의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겠다는 청사진을 필리핀 정부에 제안했다.

SK E&S는 필리핀 정부가 LNG수요 증가에 발맞춰 대규모 LNG인프라 구축에 나설 것으로 내다보고 대규모 LNG인프라 건설사업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필리핀은 유일한 자국 가스전인 말람파야(Malampaya) 해상 가스전에 천연가스 공급을 전적으로 의존해왔다. 그러나 말람파야 가스전의 매장량이 2024년 이후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경제성장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LNG수입의 필요성이 급증하고 있다.

실제, 필리핀 에너지부의 전망에 따르면 경제성장에 따라 필리핀의 전력수요가 2040년까지 연평균 5.6%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필리핀의 LNG 수요는 가스발전을 중심으로 매년 1.7%씩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필리핀 정부는 2023년 말까지 LNG 인프라를 모두 갖추고 LNG수입에 본격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SK E&S는 지난해 9월 필리핀 마닐라에 현지 사무소를 설립하고 필리핀 LNG인프라 구축 사업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SK E&S 관계자는 “당사가 제안한 필리핀 LNG인프라 건설 사업이 실현 된다면, 건설기간 중 일 평균 2,200명, 연간 80만명 수준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필리핀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만나 교역∙투자, 인프라, 국방∙방산, 농업, 개발협력, 문화∙인적교류 등 분야에서의 실질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한 바 있으며, 이 자리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와 필리핀 에너지부가 에너지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번에 SK E&S가 필리핀 에너지부와 LOI를 체결한 필리핀 LNG인프라 구축사업은 양국 간 에너지 협력 MOU에 포함된 3대 사업 중 하나로 추진될 예정이다.

 SK E&S 관계자는 “SK E&S는 상류부터 하류에 이르는 LNG밸류체인(Value chain∙가치사슬) 전 영역에 걸친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는 글로벌 에너지기업으로, LNG비즈니스에 대한 축적된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필리핀의 에너지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끝>